

머리말

머리말

나는 이 소략한 작품으로 원대한 계획을 구상했다. 여기서 나는 유럽의 것과는 다른 땅과, 유럽의 것과는 다른 초목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네 시인들은 그들이 가꾼 연인들을 개울가에, 초원 위에, 잎이 우거진 너도밤나무 아래 실컷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았다. 나는 그 연인들을 바닷가에, 바위 밑에, 코코넛나무와 바나나나무와 꽃 핀 레몬나무 그늘 아래 앉혀두고 싶었다. 지구 반대편에는 테오크리토스나 베르길리우스⁽¹⁾ 등이 없을 뿐이지,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구미가 당기는 정경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나는 풍부한 미감을 가진 여행자들이 우리에게 남쪽 바다에 있는 몇몇 섬을 매혹적으로 묘사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곳 주민들의 풍속은, 더욱이 그곳에 도착한 유럽 사람들의 풍속은 그 풍

1) 테오크리토스(Theokritos, BC310?-250?)는 고대 그리스 시라쿠사 태생의 시인. 그는 소품집 『전원시』

경을 망치기 일쑤다. 나는 열대지방 사이에 자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작은 공동체가 지닌 정신의 고결함을 하나로 합쳐놓고 싶었다. 나는 또한 이 작품에서 몇 가지 위대한 진리를, 그중에서도 특히 이 하나의 진리를 밝히고자 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은 자연과 덕성에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에 겨운 가족을 그리기 위해 꼭 상상으로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말해주려는 가족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들의 이야기 중 주된 사건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프랑스 섬에서 알고 지내던 주민 여럿이 확인시켜주었으니 말이다. 다만 거기에 몇 가지 대수롭지 않은 정황을 덧붙이긴 했는데, 그래봤자 나 개인에 관한 것이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들은 더욱 사실성이 있다. 몇 년 전쯤, 나는 일종의 목가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의 아주 어설픈 초안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아주 다른 성격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감지해보기 위해 상류층 사교계를 드나들던 어느 아리따운 부인과, 그런 세계와는 멀찌 감치 떨어져 사는 근엄한 사람들에게 낭독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흡족해했었다. 그 눈물이 내가 그 이야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강평이었고, 내가 그 이야기로 알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미한 재능에는 크나큰 악습이 따르기 십상이라더니, 나는 그 성과에서 비롯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그 작품에 『자연풍경』 이

라는 제목을 붙이려고까지 했다. 다행히 나는 자연이란, 내가 나고 자란 풍토에서조차 그 자체로 얼마나 낮은 것이었는지를 떠올렸고, 뿐만 아니라 한낱 여행자로서 그 생장을 지켜보지도 못했던 나라에서의 자연이란 얼마나 풍요하고, 다채롭고, 정겨우며, 웅장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또 그 자연을 잘 알고 잘 그려내기에는 내가 가진 통찰이나, 미감이나, 표현력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떠올렸다. 나는 그때서야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습작에다가 대중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나의

『자연연구』⁽²⁾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후속편으로 삼기로 했다. 이 제목이 대중에게 나의 능력 부족을 상기시켜주어, 늘 그 마음에 관용을 되새겨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2) 『자연연구』